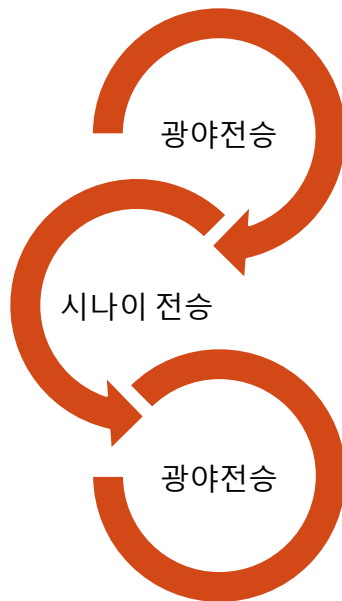


이스라엘 역사와 성서이해9

시나이 계약

전승의 규합

광야전승(정복전승)과 시나이 계약에 관련된 전승의 산발적 규합 형태



탈출기 15,22-17장

탈출기 19,1-민수10,10

민수10,11-20장

시나이 계약(19,3-24,11)

세달 만에 도착한 시나이 광야

하느님의 음성

“너는 야곱 집안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알려 주어라. ‘너희는 내가 이집트인들에게 무엇을 하고 어떻게 너희를 **독수리 날개**에 태워 나에게 데려왔는지 보았다. 이제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들 가운데에서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나의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나에게 **사제들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네가 **이스라엘인**들에게 알려줄 말이다.”(탈출19,3-6)

고대인들의 표준적인 계약갱신 의식

말하는 이의 공식적인 소개와 연설



계약을 갱신하는 의식에 반복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구성한 것이라는 해석

시나이 계약의 의미와 계약의 근거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는 구절

1. 하느님의 업적 제시(4절)

- 이집트에서 하느님께서 이루신 일(탈출의 과정)
- 독수리 날개(신명32,11-12)에 태워 데려오신 일(시나이에 이르는 여정)

→ 실제 역사에 개입하시는 하느님, 지금 현존하시는 하느님, 기억

2. 이스라엘의 자발적 응답을 요구(베아타 임-그래서 지금 만약)

- 순종과 불순종 사이에서 선택의 강요가 아니라 응답의 수단을 제공
- 응답을 통해 생물학적인 유전성을 초월하는 신앙공동체가 형성
- “이스라엘인”의 의미가 야곱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야훼를 섬기는 야훼신앙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로 변화되는 것

→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서의 공동체가 형성

3. 계약의 순종에 대한 3가지의 이미지가 등장

특별한 보물(나의 소유),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

나의 소유(특별한 보물-세글라)

- 배타적인 소유를 드러내는 이미지
- 아카드어 시킬투와 연결
- “가장 훌륭한 보석, 걸작품, 하나 밖에 없는 것” 등의 이미지를 표현하는 용어

사제들의 나라(맘멜레케트 코하님)

- 세상과 분리되어 하느님을 섬기도록 봉헌된 공동체로서의 특성
- 제사장 직분과 같이 성별된 백성 공동체로서 야훼를 경외하며 예배하는 자들을 칭하는 의미(스코트, 칼링)
- 이후의 왕권을 드러내며, 제사장들인 왕들, 제사장과 같은 왕들이 존재한다는 의미(바우어)
- 이스라엘에 대한 야훼의 주권을 드러내며, 이방국가들에 대한 이스라엘의 주권을 보여주는 용어(빌드버거)

거룩한 백성(고이 카도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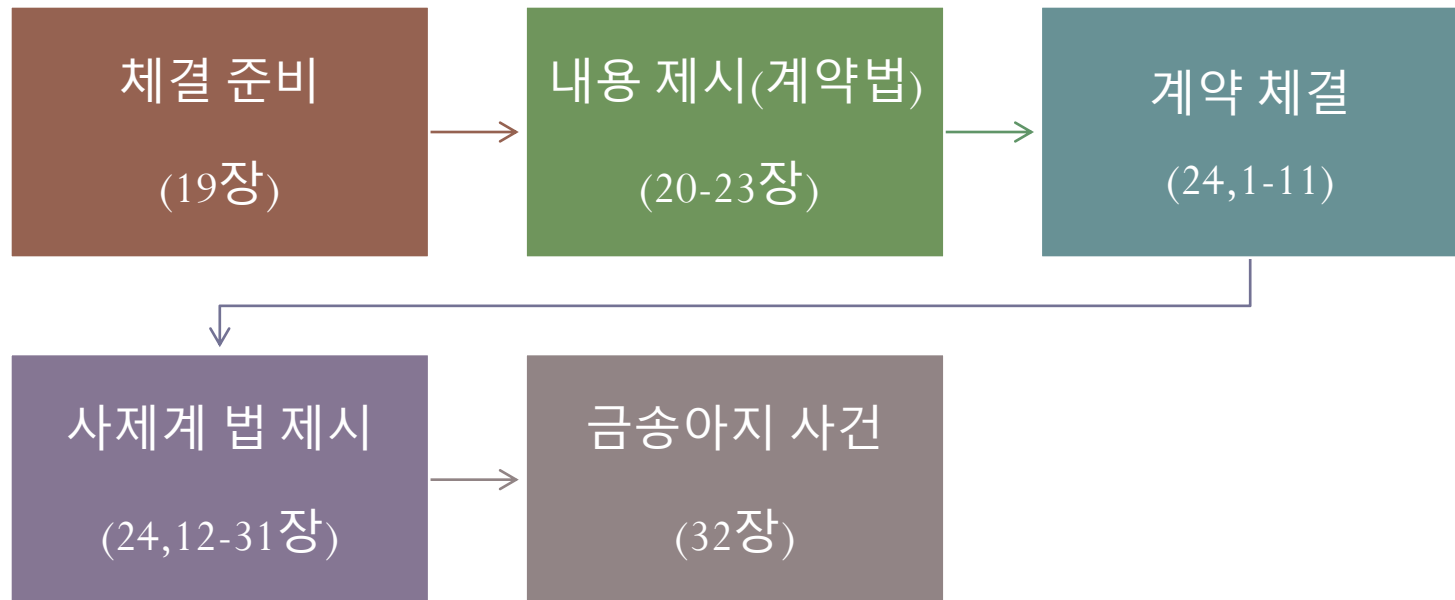
- 다른 백성들과 구별되는 하느님의 존재성을 담지한 백성들

특별한 보물(나의 소유), 사제들의 나라, 거룩한 민족

서로 연결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용어, 가리키는 대상은 명백, 이스라엘

- 계약에 헌신함에 의해 야훼의 소유가 됨을 드러내며, 하느님의 현존을 세상에 드러내는 의미로서 사제들의 왕국이 됨을 드러낸다.
- 사제들의 왕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를 어떤 존재로 이해했는지를 보여주며, 힘과 권력에 의존하는 정치에 의해 지배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을 믿는 믿음에 의지하는 사제들에 의해 다스려진 나라이며, 지배하는 나라가 아니라 하느님을 섬기는 나라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
- 믿음에 의해 다른 모든 민족들과 구별되어 계약을 맺은 백성의 변화와 역할을 드러내는 것이 ‘거룩한 민족’의 의미

● 계약 체결의 전체 구조



“주님께서 이르신 모든 것을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19,8)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24,3)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2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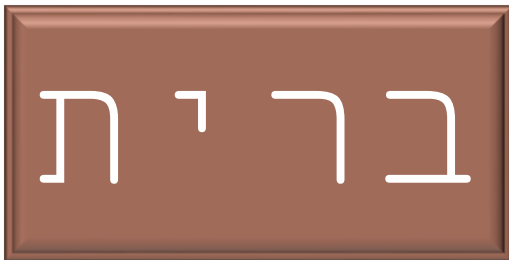
• 계약 체결 전승

24,1-2.9-11	24,3-8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일흔 명을 데리고 주님에게 올라와, 멀찍이 서서 경배하여라. 2. 너 모세만 주님에게 가까이 오고 다른 이들은 가까이 와서는 안 된다. 백성은 아예 산으로 올라와서는 안 된다.” 9. 모세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의 원로 일흔 명과 함께 올라갔다. 10. 그들은 그곳에서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보았다. 그분의 발밑에는 청옥으로 된 바닥 같은 것이 있었는데, 맑기가 꼭 하늘 같았다. 	<ol style="list-style-type: none"> 3. 모세가 백성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4. 모세는 주님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 그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산기슭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에 따라 기념 기둥 열둘을 세웠다. 5. 그는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 몇몇 젊은이들을 그리로 보내어, 번제물을 올리고 소를 잡아 주님께 친교 제물을 바치게 하였다. 6. 모세는 그 피의 절반을 가져다 여러 대접에 담아 놓고, 나머지 절반은 제단에 뿌렸다. 7. 그러고 나서 계약의 책을 들고 그것을 읽어 백성에게 들려주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실행하고 따르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8. 모세는 피를 가져다 백성에게 뿌리고 말하였다. “이는 주님께서 이 모든 말씀대로 너희와 맺으신 계약의 피다.”

전승의 충돌

24,1-2.9-11	24,3-8
산 정상에서 모세와 아론, 나답과 아비후, 칠십명의 장로 계약체결의 성찬(먹고 마셨다)	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회중 전체 제사를 통한 계약 체결(계약의 책)

조건 계약과 무조건 계약의 긴장관계가 표현



성경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모티브 중 하나

이 단어는 하느님과 인간만이 아니라 인간 사회 안에서 사람들 간의 채권관계나 약속, 의무 등에 사용되는 단어(아브람과 아비멜렉, 야곱과 라반, 솔로몬과 티로의 왕, 다윗과 요나탄 등)

성조사를 후대의 편집적 설화로 간주할 경우 본격적으로 하느님과 민족의 계약을 설명하는 최초의 설화는 시나이 전승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십계명을 포함한 율법은 기능적으로 계약의 조건

● 법의 확장

“모세가 백성들에게 와서 주님의 모든 **말씀**과 모든 **법규**를 일러 주었다. 그러자 온 백성이 한 목소리로 ‘주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을 실행하겠습니다.’하고 대답하였다.”(탈출24,3)

“그때 하느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다.”(탈출20,1)

“이것이 네가 그들 앞에 세워 놓아야 할 **법**이다.”(탈출21,1)

초기 전승은 말씀들만이 있었고, 확장되는 과정에서 법규들이 편입되었으며, 편집자가 정리하는 과정 중 백성의 응답에서 법규를 빠뜨린 것으로 이해한다.

편집과정에 대한 이해는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요구가 삽입되었다는 것

법조문들에 대한 연구는 후대의 법률들이 시나이 계약의 전승 안에 삽입되었음을 밝힌다. 따라서 구약성경에서 표현하는 율법은 다양한 시대와 상황에서 하느님을 섬기는 공동체의 삶에 대해서 편집적으로 구성된 법률집이다.

율법에 대한 간략한 연구

● 조건법(결의법, 판례법)과 단언법(절대법)

A. Alt

조건법이란?

법률적 사례에 따라 조건적 문체(‘만일 ~이면, ~해야 한다.’)를 적용하여 표현한 율법. 고대 근동 문화권에서 매우 일반화 되어 있던 양식. 대표적인 예가 계약법전 (탈출 20,22-23,33)

사람들이 서로 다투다 한 사람이 상대방을 돌이나 주먹으로 때려, 그가 죽지는 않고 자리에 눕게 되었을 경우, 그가 나중에 일어나서 지팡이를 짚고 밖을 돌아다니게 되면, 때린 자는 벌을 면한다.(탈출 21,18-19)

단언법이란?

무조건적이고 명령적인 문체(‘~하지 마라’ 혹은 ‘~하여라’)로 제시된 율법. 명령, 금지령, 저주문, 분사 구문형 법조문 등이 이러한 형태의 법조문 안에 총괄. 알트는 조건법이 고대 근동 주변 국가의 영향으로 이스라엘에 유입된 것이라면, 단언법은 이스라엘 안에서 자생적으로 탄생된 것이라고 판단. 따라서 단언법은 이스라엘의 고유한 배경과 조건에 적합한 내용으로 만들어 졌다고 주장. 대표적인 예가 십계명(20,2-17)

너에게는 나 말고 다른 신이 있어서는 안된다..... 신상도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너는 그것들에게 경배하거나 그것들을 섬기지 못한다.(탈출 20,3-5)

알트의 법 구분은 많은 지지를 얻었고, 노트, 폰 라트, 드보, 짐멀리 등이 같은 견해를 표명했지만, 반대 의견도 많이 있다.

이스라엘 고유의 법은 단언법이다(?)

논거: 다른 법조문들과는 달리 농경생활이나 왕정시대의 시대적 담론, 정착된 사유재산 등의 내용이 담기지 않으며, 광야 생활에서의 하느님과 관계성을 표현하는 법조문들로 구성되어 있다.

반론: 절대적인 형태의 법조문들은 근동의 다른 문화권에서도 흔치는 않지만 발견되며, 보편적인 가치와 종교적 심성을 표현하는 것이다.

종합

조건법과 단언법의 구분을 통해 고유의 법과 문화권의 법을 구분하는 것이 연구가치는 있으나, 사실을 특정할 수는 없다. 삶의 역사 가운데 하느님의 뜻과 의도가 법조문에 세밀하게 담기는 것은 자명한 일이며, 법은 그렇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고유의 법과 문화권의 법을 구분하는 것보다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실현하려고 했는가를 살피는 것이 더 필요하다.